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8월 20일

CUOMO 주지사, 사기 범죄 방지를 돕기 위해 뉴욕주 소비자 보호 기관 파견

소비자보호과, 노인의 사기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코디네이터 파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법무부의 소비자 보호과를 파견하여 뉴욕주 노인들에게 사기 범죄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세션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인들은 가장 사기의 피해를 입기 쉬우며 다양한 사기 범죄로 미국의 노인들이 연간 30억 달러 이상 피해를 입는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는 수치스러운 일이며 뉴욕주에서 용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행정부는 뉴욕의 노인들과 적극 협력하여 사기꾼들의 수법에 대해 교육하고 현재와 미래에 이를 예방할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이 예방 방법에 대해 배워 본인과 가족들을 보호할 것을 권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부도덕한 사기 범죄의 집중적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AARP에 따르면 전체 사기 범죄 피해자의 1/3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합니다. AARP는 사기 범죄로 노인들에게 매년 3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주고 있으며 대부분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이 더 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뉴욕주 Cesar A. Persales 국무부 장관은 “Cuomo 주지사가 범죄자들로부터 노인의 경제적 안정성과 재정 상태를 해치지 못하게 보호할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 행위는 계속 증가하므로 그 보호책도 진화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노인 담당실(Office for the Aging) 책임자 Corinda Crossdale씨는 “사기 범죄를 방지할 때 정보가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사기꾼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므로 그러한 사기 행위와 예방 방법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주 노인 담당실의 59개 지역 사무소 네트워크에서는 사기 행위를 감지하고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노인들을 사기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교육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담당자가 다양한 날짜와 뉴욕주 전역의 장소에서 노인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8월 28일 10:30 a.m., Jewish Community Center of Buffalo at 787 Delaware Ave. Buffalo, NY (주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와 통화 금지 번호 등록)
- 9월 3일 10:30 a.m., Ridgewood Adult Center at 59-14 70th Ave., Queens, NY (주제: 노인 신원 도용 및 사기 범죄)
- 10월 2일 10:00 a.m., Senior Scam Prevention Forum. Bay Shore/Brightwaters Public Library at 1 S. Country Rd. Bay Shore, NY (주제: 신원 도용 및 노인 대상 사기 범죄)
- 10월 25일 9:00 a.m.-4:00 p.m., Albany Law School's Senior Day. 80 New Scotland Ave, Albany, NY (주제: 신원 도용 및 재무 지식)

Cuomo 주지사는 또한 노인과 노인을 돌보는 사람이 수상한 권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비자 보호과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노인에게 피해를 주는 3대 사기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IRS(Internal Revenue Service) 사칭: IRS 직원이거나 경찰이라며 전화해서 연체된 세금이 있다고 합니다. Green Dot Card Money Card 또는 Western Union MoneyGram으로 즉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이 당장 체포할 것이라고 겁을 줍니다. 이러한 사기꾼들은 거짓 발신자 번호나 위장 기술을 사용하여 발신자 이름 또는 번호가 IRS의 번호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소비자 보호과에서만 2013년에 이러한 유형의 사기 범죄 민원을 78건 접수했는데 2012년에는 62건이었습니다.

손자 사칭 범죄: 노인에게 손자라고 사칭하는 사람이 긴급하게 전화를 하여 집을 떠나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부모에게는 비밀로 하고 돈을 신속하게 송금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사기꾼들은 소셜 미디어나 기타 출처에서 얻은 실제 친척의 이름과 정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과에서만 2013년에 이러한 유형의 사기 범죄 민원을 51건 접수했는데 처음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무상 보조금 사기 행위: 사기꾼이 노인에게 전화를 하여 모범적 세금 납부나 채무가 없는 등의 이유로 노인이 “정부의 무상 보조금”을 받는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보조금을 소규모 사업체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제공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조금을 받기 전에 피해자가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고 하거나, 신원 도용에 사용할 개인 정보 및 재무 정보를 피해자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과에서만 2013년에 이러한 유형의 사기 범죄 민원을 48건 접수했는데 2012년에는 39건이었습니다.

소비자 보호과는 The Harry & Jeannette Weinberg Center for Elder Abuse Prevention at the Hebrew Home at Riverdale, 뉴욕주 노인 담당실(Office for the Aging), AARP 및 Free Community Papers of New York과 제휴하여 매월 무료 “노인을 위한 소비자 정보 라인”을 개설하여 뉴욕주 전역의 노인들이 안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정보를 사용하고, 독립성을 극대화하며, 일상 생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1-800-503-9000로 전화하여 이 라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인에 대한 모든 정보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매월 노인과 관련된 새로운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보호과의 기타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정보나, 특정 그룹 또는 단체를 위한 프리젠테이션을 요청하거나, 민원을 접수하려면 <http://www.dos.ny.gov/consumerprotection>을 방문하거나 소비자 지원 핫라인에 800-697-1220으로 전화하십시오. 소비자보호과에는 트위터([@NYSConsumer](https://twitter.com/NYSConsumer))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nysconsumer>)을 통해서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WE WORK FOR THE PEOPLE
PERFORMANCE * INTEGRITY * PRIDE